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 “와서 보아라”

약 2,000년 전의 나자렛 사람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느 한 인물의 됴됨이와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그를 직접 보고, 더 나아가 함께 살아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실제로 요한 복음서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의문과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요한 복음서, 1장 35절 이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본 후,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묻는다. “라빠(스승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짧고 간결하게,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던 안드레아는 다음날, 형 베드로에게 말한다, 아니 고백한다. “우리는 메시아(그리스도)를 만났소.”

2,000년이 지난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분의 모습과 행동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실망은 금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갈 수 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되짚어 갈 수 있다. 그 책은 바로 ‘복음서’이다. 마태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초기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풍부히 담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책을 성실히 읽지 않고, 차분히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묻는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바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의 이러한 초대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복음서를 펴자!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껴 보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나아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자. 복음서를 읽어가는 여정에서 우리 역시 안드레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서를 통해 메시아(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2015년 3월8일, 청주주보,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전승만 요셉의 영혼을 위해서	전비아 가정	생	김희정, 김재연 김로사 장실비아 지나탐승 생일감사	소화대례사
연	장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이 요 썸	생	전정옥 (율리아나)의 건강을 위하여	주동숙 모니카
연			생	본당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ME

일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6월 16일(화)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3,280.00 \$1,086.00
6월 17일(수)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오전 7 : 30	교구 원 캠페인 토요 특전	\$ 100.00 \$ -
6월 18일(목)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200.00 \$ 175.00
6월 19일(금)	연중 제11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 94.00
6월 20일(토)	연중 제11주간 토요일	오후 7 : 30	성당발전기금 합 계	\$ - \$4,935.00
6월 21일(일)	연중 제 12주일 (야외 미사)	오전 11 :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3월 김수한 1~5월 문홍식 4~5월 박선경 5월 이대원 김재열 김운태 5~6월 권오돈 6월 장호길 우순이 이상인 김채홍 구준모 박옥생 남필레 전정옥 전기례 지복원 김숙자 허용희 엄정식 김광진 백정심 김병준 박정희 지영옥 엄영자 이정규 김길록 엄용덕 김영숙 6~8월 박재례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6월은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특별히 사제성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매주 화요일 저녁8시)
- ◆ 문 의: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신청-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 ◆ 둘째 주- 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3. 야외 미사 :6월 21일 (일) 10시40분까지 도착

- ◆ 본당 신부 사제 서품 20주년
- ◆ Lew Howard Park(작년과 같은 장소)
- ◆ 7001 Baldwin Dam Rd, Flosom, CA 95630
- ◆ 음식 구역별 준비
- 차량안내 Norte Dame Apt :오전 10시 이주순 율리오(530)906-0262
- Lincoln Apt :오전 10시 김용문 요한 (916)903-6702
- 성 당 : 오전 10시 신부님 차량 출발

4. 사제관 건축위원과 지문위원을 임명합니다

- ◆ 건축위원 : 고정하 아급(위원장), 신상철 사무엘, 최병업 바오로, 장순욱 스테파노 한승훈 다미아노, 윤여훈 로마노 서주연 마리아
- ◆ 지문위원 :김길록 이레네오 구준모 요한 이재덕 스테파노 김귀태 안셀모

5.성시간 성령 찬미 미사 6월 26일 (금 ) 7시 30분

월피정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은총받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6. 교구 2차 헌금 - 6월 28일 (일) 이차헌금 있습니다.

(Peter's Pence Collection-Collection for the Holy Father)

7. 네팔 지진 피해자 돕기

- ◆ 가톨릭 긴급구호 후원에 참여해 주세요(www.scd.org) www.crs.org 로 가셔서 후원 하실수 있습니다.

8.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서 작성자는 총 75명입니다

지난주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박재례(\$100)	\$35,345.00

9. 감사합니다

- ◆ 서희석 세레나 자매님과 김상길 마티아 형제님께서 연령회에 (\$2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 ◆ 손마리아 남편 故손봉섭 형제님의 장례식에 참석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이번주 점심봉사: 임실비아와 대녀들 보 조:전 비아, 진엘리사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5,928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3078	224,944단

지구 & 교구소식

- 서중부 여성제10차 꾸르실료 참가신청 -3박4일(6/25 ~ 6/28일)
- ◆ 문 의: 김동현 미카엘, 구준모 요한 /참가비:\$250.
- ◆ 여성 10차 꾸르실료 주말 피정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 ◆ 꾸르실리스타들은 연회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북미 꼬미시옹 회의 6월 28일로 연기- 오후 1시 성당

모임안내

- 사목회 : 28일 오후 1시 엘리사벳 방
- 성당 골프 모임 : 6월 14일 오후 2시 킬랜드
- 리노공소 : 6월 28일-공소 차량봉사 해주실 분. 오후 2시 반 출발

주일/한글학교

- 주일학교 학생들 교리는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 문 의: 이시래 베아타(919)749-0632/장선영 스콜라스티카367-3363

전례 봉사	06월 14일	06월 21일	06월 28일	07월 5일
해 설	김은선 (제노피아)	김은영 (폴 리 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혜련 (데 레 사)
1 독 서	임혜숙(그라시아)	신흥제 (야고보)	원영일 (미카엘)	고정하 (야고보)
2 독 서	이영숙(데레사)	신부순(데레사)	원헬리나 (헬레나)	고선희(크리스티나)
복 사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 (바오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봉헌/기도/청소	7RT~8NC	7RT~8NC	7RT~8NC	7RT~8NC
헌금 위원	이나숙 정의주	송돈희 임상일	고공자 임그라시아	장석자 고원석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b>미술 지도</b> (Creative Art Class)</p> <p>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지도합니다(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4</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p> <p>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b>East WestTravel</b> (동서여행사)</p> <p>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b>메리서 부동산·융자</b>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b>제인 안 변호사</b> 과산법 전문 (카드빚,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b>서은미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b>Exigo ITSolutions</b> <b>컴퓨터 수리</b>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a href="mailto:support@exigoits.com">support@exigoits.com</a>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b>1.2.3AutoBody/정비</b>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b>JIMMY KIM</b> <b>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b>영문서류 도와드립니다</b>  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일날 성당에서 보아드립니다 <b>연 락:전비아 (916)548-7132</b> <b>이플로렌시아(916)176-1834</b>  사 회 복 지 부</p>
<p><b>ShoGun Sushi</b>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b>Law Office of</b> <b>Daniel S. Lee</b>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a href="mailto:danleelaw@gmail.com">danleelaw@gmail.com</a> ☎(916)922-0107</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Paul Choi&amp;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a href="http://samuraisushisac.com">samuraisushisac.com</a></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b>신세계 여행사</b> 80 Grand Ave. #202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7495</p>	<p><b>한국위성방송</b> 한국방송(MBC, MBC Everyone, 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 CBS Badook) + 미국방송(Direc TV) "무료설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b>FARMERS</b> <b>배 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 비 오 )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에제케엘 17:22-24** 제2독서 **코린도 2서 5:6-10** 복음 **마르코 4:26-34**

화답송: 시편 92(91), 2-3, 13-14, 15-16(◎2ㄱ참조)

화답송



## 하느님 나라

1. 우리는 온갖 신비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신비입니다. 지난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도 다 알지 못하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삶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영역 곧 하느님의 영역, 하느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도 나오지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싹이 터서 자라지만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며, 단지 농부는 때가 되면 낫을 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되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2. 우리네 삶에도 하느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며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의탁할 줄 압니다. 하느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이든 하려하니 힘이 들고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느님께 의탁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결과이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이 생명을 가꾸고 돌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돌보아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 작으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마르 4,31-32) 하느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소한 듯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성경 읽기, 미사참례, 봉사, 희생, 사랑 실천, 정의 구현 활동... 이 모든 것들이 보잘 것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서서히 성장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믿음 안에 하느님 나라 곧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나라’를 갈망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교회가 대사회 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각 교구별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 5.18 광주민중 항쟁이 일어난 날을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 기도회’를 하며 ‘시국미사’를 봉헌한 것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갈망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희생과 노력과 헌신들이 온갖 어려움이나 현실과의 타협 또는 나약한 생각으로 포기하려는 마음도 갖겠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두며 힘이 들더라도 성실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 하느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5. 기도는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릇된 마음이나 생각을 바로 잡아 줍니다. 항상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성실히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성실히 기도하고 노력하며 하느님께 의탁한다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성동 본당 이희정 요셉 신부

### 사랑법

자물쇠로 꽂꽂 잠그니. 자폐아인 아들은 자꾸 집을 나갔다. 할 수 없이 바깥에서 잠가보기도 했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제새집을 지어 아예 자물쇠로 잠그지 않으니.

그는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지킨다.

- 어느 자폐아 부모의 말에서  
강은교 클라라 시인/김복태 요한 화가

